

투데이칼럼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를 통한 복지정책에 거는 기대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출범 후 3개월여 만인 지난 9월에 123대 국정과제를 만들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네 번째 국정 목표로 설정하며, 소득·주거·의료·돌봄이 보장되는 포괄적 복지국가 건설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37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된 이 야심찬 국정 운영 계획은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복지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전면적 개혁이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20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상향하고,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빈곤층이지만 형식적인 가족 관계 때문에 복지 혜택에서 배제되었던 힘없고 소외된 수많은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다.

더 주목할 만한 점은 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혁신이다. 인공지능 기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통해 신청주의의 한계로 인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복지정책의 수동적 접근에서 능동적 접근으로의 전환을 의미한



이 만 호

본보 정치부장

다. 이재명 정부 복지정책의 핵심은 ‘통합 돌봄’ 체계다. 2026년 3월 ‘돌봄 통합 지원법’ 시행과 함께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이라는 슬로건 아래, 노인과 장애인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익숙한 공간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퇴원 환자를 위한 지원주택(중간집) 제도를 도입해 불필요한 요양병원 입소를 방지한다.

특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을 3만 명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발달장애인 돌봄의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은 많은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는 이재명 정부 복지정책의 또 다른 축이다. 가장 혁신적인 정책은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다. 중증 환자의

간병비 본인 부담을 70% 경감한다는 목표는 많은 가정의 경제적 파탄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변화다.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 신설, 공공의료기관 확충,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검토 등을 추진한다.

또한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전환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국고 지원 확대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청년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에 맞춘 복지 설계도 돋보인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청년에게는 ‘청년 미래 적금’ 신설로 자산 형성을 적극 지원한다. 국민연금의 군 크레딧 확대와 기초연금 간액 제도 단계적 축소로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며, 법정 정년 연장과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대응이다. 경로당 식사주 5회 확대,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생애주기별 일상 회복

패키지 등은 물질적 복지를 넘어 관계와 존엄의 복지로 나아가려는 시도다.

이 모든 정책의 지향점은 ‘기본 사회’ 실현이다.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이를 총괄·조정할 기본사회 위원회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복지를 시혜나 은혜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철학적 전환이다.

이재명 정부의 복지정책은 빈곤층 보호, 전 생애 돌봄 체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세 축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AI 기반 사각지대 발굴, 간병비 획기적 경감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핵심 과제다.

물론 이러한 복지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와 실행력이 관건이다. 하지만 이 정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된다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진정한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을 통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복지정책이 반드시 성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기대한다.

진정한 복지 선진국이란 복지정책이 겉돌지 않고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이루어져 힘없고 소외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사설

진안 안천초 백주년

진안군 안천초등학교가 개교 100주년을 맞아 지난 9월 20일 기념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안천초 재학생과 교직원들은 물론 안천초 동문, 분교였던 백화·삼락·승금 분교의 동문 등 700명가량이 참석했다.

이날 안천초 개교 100주년 기념 문학 작품집 ‘100년을 살아온 추억이야기’가 100주년기념사업회 이름으로 발간, 배포돼 눈길을 끌었다.

작품집에는 한귀석 동문 등의 축시 3편, 안천초 양남석(32회) 동문 등의 시 15편, 백화초 김강호(3회) 동문 등의 시 8편, 수필 2편, 재학생들의 시와 그림 15편가량이 실렸다.

안천초는 1925년 8월 25일 개교했으며, 용담댐 수몰로 1999년 3월 1일 현 위치(옛 백화초)에 자리 잡았다. 전국 최초로 초중고 통합학교로 운영 중

이다.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한 굵직한 동문들을 많이 배출한 인재 양성의 요람이었다.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고 한승헌 전 감사원장, 한창민 국회의원, 한연중 군산대 총장 등이 이 학교 출신이다.

1984년 진안 안천에서 태어나 안천초 22회로 졸업한 한 전 감사원장은 군사정권 시절 여러 시국사건 변호를 맡으며 한국 인권 변호사의 상징적인 존재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행사에는 성흥수 개교 100주년기념사업회 회장을 비롯해 문상일 안천초 교장, 진안교육지원청 송승용 교육장, 안천 출신 국회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전춘성 군수, 동창육 진안군의회 의장, 전용태 도의원, 윤석정 전북지지도 애향본부 총재, 이용진 재경진 안군민회장 등이 참석했다.

식약처 영상공모전 우수작 4건 선정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5 식품안전나라 20초 영상 공모전’을 개최하고 4건의 우수작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생생형 인공지능(AI)과 식품안전나라 캐릭터인 ‘미어로’를 활용했다. 식품안전나라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숏폼 형태의 모바일 친화적 콘텐츠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대상 수상작은 ‘밥상 히어로즈 팀’의 ‘우리 가족의 안전한 식탁’ 그리고 최우수상 수상작은 강동우님의 ‘국민의 식탁을 설계하는 곳, 식품 안전나라’로 선정됐다.

작품은 식품 알레르기과 같은 일상 속 식품 안전에 관한 고민을 다루었다. 식품안전나라의 식품·수입 식품·건강기능식품 정보, 우리동네 정보 및 공공데이터 활용 기능을 통해 해결하는 이야

기를 담고 있다. 우수상 수상작인 정지윤·김수현님의 ‘오늘은 안전하게, 내일은 건강하게’이다. 박현수님의 ‘내 손 안에 볼 수 있는 신뢰’는 식품안전나라가 제공하는 식품 안전 정보의 중요성을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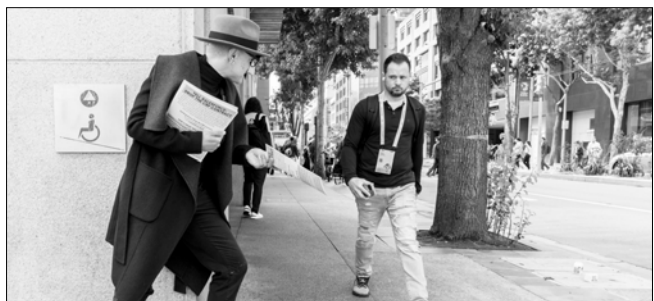
내 손 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편리하게 식품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영상물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역 맞이방에서 내달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홍보물로 게시될 예정이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누리소통망 등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식품안전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세일즈포스’ 반대 전단 나눠주는 활동가



15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센터에서 고객관계관리(CRM) 소프트웨어 기업 ‘세일즈포스’의 연례 컨퍼런스 ‘드림포스 2025’가 열린 가운데 행사장 주변에서 한 남성이 ‘세일즈포스’와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계약에 반대하는 전단을 나눠주고 있다.

짐 들고 미 국방부 청사 나오는 주요 매체 기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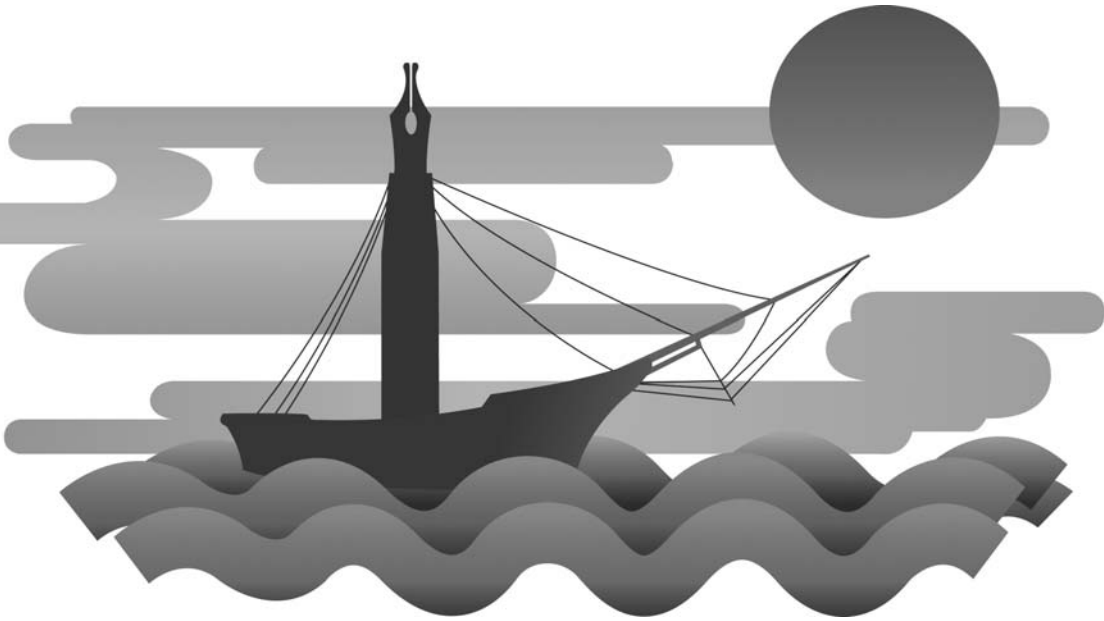


미승인 정보를 언론에 노출하지 말라는 펜타곤(미 국방부)의 새 보도지침을 거부해 출입이 금지된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15일(현지 시간) 짐을 들고 청사 밖으로 나오고 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